

광주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본격화

4억 투입 추석 전 햅쌀 공급 목표
광산구 분량동서 '조명1호' 시연회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대 63% 감축



광주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분량동과 삼도동 일대 50ha 면적에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조생종 '조명1호' 모내기 시연회 모습.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6일 "지난 4일 광산구 분량동에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생종 '조명1호' 모내기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벼 품종을 보급하고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분량동과 삼도동 일대 50ha 면적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22농가가 참여해 조생종인 '조명1

호'와 중만생종인 '영호진미'를 주력품종으로 재배한다. 참여 농가는 공동 농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친

환경 재배 기술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 농가 선정, 재배기술 교육 및 사업설

명회,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지도, 종자 확보 및 육묘 관리, 식미 평가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생산단지에서 재배되는 '조명1호'는 밥맛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재배 안정성이 높고 수확 시기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석 전 햅쌀 공급이 가능해 시장 경쟁력이 매우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사업에서는 질소비료 사용량을 10a당 기준 9kg에서 7kg으로 줄이고 논물을 말리는 '중간 물떼기' 등 정밀한 물관리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품질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3%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또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 및 지역농협과 협력해 유통 체계를 단일화하고 완전미율 98% 이상, 단백질 함량 63% 이하의 엄격한 지집을 준수해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연회는 광주 쌀산업이 나아가야 할 고품질화와 저탄소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재배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주 대표 명품 쌀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번은진 기자

농협전남본부 '고향사랑 지역 농산물 홍보' 캠페인

함평 나비대축제 현장서 전시·나눔
관광객 대상 참여 유도·우수성 알리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등 여섯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평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전시하고 우리 농산물 나눔 행사를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

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장 중심 홍보를 이어갔다.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국내 대표 축제인 함평 나비대 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중앙본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농·축산물 답례품 확대 및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친환경농산물 신뢰 높인다

도, 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8억1천만원 투입 4천500여건 지원

전남도는 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8억1천만원(도비 2억원, 시·군비 6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친환경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건당 검사비 18만원씩 총 4천500여건을 지원한다. 이번 검사는 농업인에게는 인증 기준 준수의 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와 농가에서 생산한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검정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도권 급식업체 납품 신선 과채류 등을 우선 검사해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을 한 뒤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만 출하되도록 할 방침이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보조금 회수와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K-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전남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농기원, 우량 차나무 묘목 4만3천주 보급

기후변화 대응·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기후 변화 대응과 고품질 차(茶) 원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 개발한 우량 차나무 품종 묘목을 농가에 지속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은 약 43만주(21ha)에 달하며 매년 5만주 안팎의 묘목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올해는 참녹, 보향, 명녹, 상녹 등 9개 품종 총 4만3천주를 보급할 계획이다.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4월 초 수오 조사를 실시한 뒤 4월 중순부터 농가가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5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보급 대상은 청년농업인, 평지다원 조성 농가, 기존 보급 농가 중 보식이 필요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신규 재배 기반 확대와 기존 차밭의 생산성 유지·개선을 동시

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엔 보급되는 품종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내한성이 강한 계통으로 재해에 강하고 기계화 재배에 유리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묘목 보급과 함께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도 병행해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김길자 차산업연구소장은 "지속적인 묘목 보급과 현장 지원을 통해 지역 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우수 품종의 안정적 보급을 기



반으로 차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